



운암 김성숙 선생이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중경 연화지 임정 청사. 앞은 김구 선생 동상.

젊은 패기로 통일의 염원 가득 담아

'운암 항일운동사적지 중국 탐방단' 동행취재

"저희 잘 다녀왔습니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 '제2회 항일운동사적지 중국탐방단(단장 남기행, 이하 탐방단)'이 8월 7~15일 진행된 여정을 끝마쳤다. 스님 출신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번 중국 탐방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특히 부각됐다. 하나는 해외 사적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다.

흔히 임정이라고 하면 상하이 임정을 떠올린다. 이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충청 광복군 총사령부는 음식점으로 모습을 바꿨다. 총칭 오사야항의 임정 청사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았고, 실측은 했다지만 언제 어떻게 복원될지 미지수다.

그나마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 상하이·충청 임시정부다. 이들은 각각 해당 지역의 사적지로 인정받았다. 아무래도 한국 관광객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기도 중국 측에서도 신경 쓴 흔적이 보인다. 우

조차 주체사상에 맞지 않는 독립투사일 경우, 좌파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제한다"면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이념 문제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독립투사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오직 조국 독립을 염원했으나 이념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장(死藏)된 이들의 한(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탐방단의 숙제일 것 같다.

이번 탐방은 숙연했지만 보람도 있었다. 뜻밖의 젊음의 상징, 대학생들이 보낸 여행 내내 패기와 열정이 가득했다. 숙찬 일정이 이어져 지칠 때쯤,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는 모습도 아름다웠다.

김민희(서울대 법학1)씨는 "대학 입학 후 첫 방학에 좋은 언니오빠들을 만나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집에 도착하는 대로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정리해 평생 잊지 않을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살짜 아쉬운 점이 남은 것도 사실이다. 이진욱(연세대 경영4)씨는 "이동시간을 줄여 여유 있게 중국 내 우리 사적지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면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의 우리는 분명 '나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이번 탐방은 우리 항일운동사를 각자의 가슴 속에서 재조명하고,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중국/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해외에 있는 우리 유물·유적에 관심을"

운암(숙명여대 경영 4학년)

운암아씨는 이번 탐방단에서 유일하게 1기와 2기 탐방을 모두 체험했다. 지난해 중국 항일운동 사적지를 탐방했을 때와 어떤 점을 다르게 느끼고 있을까.

"아무래도 지난해에 보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좀 더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이번 탐방에서는 상하이 임정에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본문을

중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고 명시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들 하잖아요. 좌파든 우파든 독립투사면 모두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 속상해요."

현재 네이버 '벗다와 떠나는 책여행' 카페이기도 하고 있는 운암아씨는 앞으로 우리의 해외 유적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다.



운암 선생을 기리며 합창하는 탐방단. 음식점으로 변한 광복군 총사령부.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저술한 임시정부 청사.

탐방단 남북통일에 기여해 줄 것 당부

운암·김산 선생 후손 만나

8월 13일 베이징에서 이뤄진 운암 선생의 둘째 아들 두젠(杜健·74)씨와 김산 선생의 아들 고영광(高永光·70)씨, 손자 고우원(高雨原·35)씨와의 만남은 탐방단 일정 중 가장 감동적이었다. 우리말은 거의 하지 못하지만 이들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두젠씨와 고영광씨는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지 못했다. 두젠씨는 12살 때 아버지와 헤어져 어머니 두근혜(1904~1981) 여사 밑에서 자라야 했

기에, 고영광씨는 김산 선생이 1938년 일본 간첩 혐의로 중국공산당에 처형됐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일찍 이별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독립투사 아버지를 둔 아들답게 큰 뜻을 품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들이 탐방단에 한 목소리로 해주고 싶은 말은 "독립투사들의 염원을 이어 남북통일에 기여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빨리 하나로 뭉쳐 부강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같은 민족이기에 통했다.



운암 선생 자료. 운암 선생의 둘째아들 두젠씨. 김산 선생의 아들 고영광씨.

운암 김성숙 선생은

-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 출생.
- 1916년 용문사에서 출가, 월초 스님으로부터 범호 '대허'를 받음.
- 1919년 봉선사 스님들과 독립문서 제작·살포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
- 1923년 중국 민족대학 입학, 신채호·유지명 등을 만나 조선의열단 참여.
- 1925년 중국 중산대학으로 전교, 정치학 전공.
- 1928년 중산대학에서 만난 중국 여성 두근혜와 결혼, 세 명의 자녀를 둠.
- 1937년 조선민족전선연맹 창설, '민족전선' 발간.
- 1943년 임정 국무위원 취임
- 1945년 환국
- 1946년 미군정의 임명 참여 반대운동으로 미군에 체포, 금고형.
- 1957년 근로인민당 재건 시도했다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체포.
- 1969년 71세를 일기로 타계.
-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질곡의 역사 현장에서 메모에 열심인 학생들.

임정) 국무위원을 역임한 운암 김성숙(범호 태허, 1898~1969)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간 이번 탐방단은 50명의 대학생들과 취재진 등으로 구성됐다. 탐방에서는 비단 운암 선생의 족적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진 중국 내 항일유적지를 두루 둘러봤다. 돌아본 곳만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꾸이린(桂林), 충칭(重慶), 베이징(北京) 등 총 7개 도시다. 9일 동안 소화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여정. 더위와 싸워가며 걸어가는 길은 멀지만 했다. 하지만 탐방단은 일정

남·녀 대학생 50명 무더위와 싸우며 탐방 대부분 유적지 차고 음식점 등으로 변해 힘든 여정에도 역사 바로알기에 가슴 뿌듯 다음에는 우리 사적지도 볼 수 있길 기대

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까닭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항저우(杭州), 류저우(柳州), 충칭(重慶) 등을 옮겨 다녀야만 했다. '더부살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일본이 중국까지 공략해 항일운동을 펼쳐 나가기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방단이 허탈함을 느낀 것은 분명 존재했던 운암 선생이나 다른 독립투사들의 자취를 이제는 모두 간판이나 주수판에서 밖에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한의 조선민족전선연맹 거점 지역은 차고로,

리의 해외 유적지에 대한 관심 여부가 사적지 보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 부각된 점은 좌파계열 독립투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운암 선생 역시 임정에 참여했지만 1937년 김원봉·유자명 선생 등과 함께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드는 등 좌파 계열에서 활동했다.

이번 탐방단의 지도교수를 맡은 충북대 역사학과 박결순 교수는 "북한 역사학자들과 올해 초 학술대회를 가졌지만 그들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모집

본 대학 연구원에서는 서울, 부산 등 2개 지역별로 나누어 불교의식(범음·범패)수련생을 모집합니다. 단기속성 3개월 과정(제30기)

1. 서울지역 수강안내

- ◆개강일자 : 2007년 9월 3일(월) 오후 3시(목탁지참)
- ◆출강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본대학
- ◆통신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2. 부산지역 수강안내

- ◆개강일자 : 2007년 9월 8일(토) 오후 1시 30분(목탁지참)
- ◆교육일자 : 매주 토요일, 1시 30분 ~ 5시 30분(4시간)
- ◆교육방법 : 서울 교육방법과 동일(교육자료 배부)
- ◆교육장소 : 본 대학 부산교육원(법림정사) 부산시 초량동(부산역 앞) TEL 051)466-1959

3. 교육내용 : 송주편, 예경편, 헌공편, 재의식편, 시식편

4. 교육기간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30기)

5.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제출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한선빌딩 3층) ☎ 02)720-1836, 733-1959